

세종시-제주도, 우수 로컬푸드 상호교류 협약 체결

양 지역 주민들에 안전 확보된 고품질 먹거리 제공

-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5:44
-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5:4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제주도와 16일 로컬푸드 도담점 상성문화관에서 우수 로컬푸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컬푸드 상호교류 협약은 양 지역의 특색 있는 제철 로컬푸드를 상호 공급함으로써 양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세종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세종시-제주도 로컬푸드 상호교류 협약식 [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이번 로컬푸드 협약식에는 양 자치단체 관계자와 최무락 세종로컬푸드(주) 대표이사, 황광환 농협경제지주 세종연합사업단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약정으로 세종시는 쌀·딸기·복숭아·포도·배·오이 등을 제주도 조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제주도 감귤과 옥돔·은갈치·고등어·참조기 등을 팔게된다.

신문호 세종시 로컬푸드과장은 "이번 약정을 계기로 두 도시가 상생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성공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지방분권 조기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양 시·도지사가 체결한바 있다.

goongeen@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